

## 복음의 시작 (1:1-8)

<sup>1</sup>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sup>2</sup>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sup>3</sup>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sup>4</sup>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sup>5</sup>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sup>6</sup>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sup>7</sup>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sup>8</sup>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새번역)

<sup>1</sup>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sup>2</sup>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sup>3</sup>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sup>4</sup>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sup>5</sup>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sup>6</sup>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sup>7</sup>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sup>8</sup>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개역개정)

###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Ἀρχὴ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θεοῦ])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아르케(ἀρχή) = 시작

LXX 창세기와 시작이 비슷하다.

(ἐν ἀρχῇ ἐποίησεν ὁ θεὸς τὸν οὐρανὸν καὶ τὴν γῆν)이다.

(cf. MT: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세상이 ‘시작’되었듯이,

예수의 사역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암시



하나님은 어둠과 혼돈에 빛과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세상을 창조  
이제 그리스도는 어둠의 역사에 빛을 비추어, 새로운 창조를 시작

복음(εὐαγγέλιον) = 좋은 소식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의 사역을 “복음”, 즉 “기쁜 소식”으로 규정  
그리스-로마세계에서 “복음”(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는

- (1)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데 사용
- (2) 새로운 통치자가 왕위에 오른 것을 알리는 데 사용

따라서 독자(청자)들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읽을(들을) 때,

- (1) 승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
- (2) 새로운 통치자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직감

↓

그렇다면, 누가 새로운 통치자이며, 누구의 승리 이야기인가?

↓

“예수 그리스도”(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예수” = “요수아”의 그리스식 이름

뜻: 야웨는 구원이시다

“그리스도” =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 = 메시아

누가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았는가?

→ 왕, 제사장, 예언자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

[ “하나님의 아들” ] **보문문제 !!!**

당시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신적 권위를 소유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 마가는 로마의 통치체제를 대신할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할 것

## 2-3절

구약 인용

(1) 2절 = from 말라기 3:1 (not from 이사야) - 마가의 실수?



(개역개정: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2) 3절 = from 이사야 40:3



(개역개정: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 2-3절에서 인용한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 사이의 차이

### ① 3절: “광야에서”

: 구약에서는 “광야에서”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할 장소로 제시

신약에서는 “광야에서”가 외치는 자가 있는 장소를 지시

→ 구약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마가는 자신의 문맥에 맞도록 변형시킨다.



구약의 구절을 세례자 요한에 적용(cf. 4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가리킨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ἄγγελος) 또는 “심부름꾼”이다(2절).

### ② 2절: “내 앞에 길”(말라기) VS. “네 길”(마가)



예수의 길

### ③ 2절: “하나님의 길”(말라기) VS. “그의 길”(마가)



예수의 길

2-3절에서 마가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가?

마가가 인용한 이사야가 선포: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

#### 4절

하나님의 사자(2절)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3절)의 정체가 밝혀짐 →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



유대전통에서 광야는 이중적인 상징

첫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둘째, 광야는 시련(유혹과 고통)의 장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

마태는 세례자의 활동에서 “죄 사함”의 기능을 삭제(마 3:1-12) 왜?

첫째, 예수가 이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용서 받아야 할 죄가 예수에게 있다는 것인가?

둘째, 죄 사함은 신적 기능

세례자에게 이러한 신적 기능이 있는가?



마태는 죄 사함의 기능을 “세례”에서 “성만찬”으로 옮겼다(마 26:28).

“회개의 세례”

어쨌든 마가는 요한의 세례에 “죄 사함”의 기능을 포함시킨다.

당시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에세네파의 정결예식과는 달랐다.



일회성

(전인적인 변화 촉구)



회개(μετάνοια)



반복성

요한은 세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예식을 행하였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재현

(마치 1,000년 전 조상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듯이)



이렇게 세례 받은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었다. (새로운 정체성)

##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세례자의 활동에 대한 호응의 정도와 그의 영향력을 묘사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죄를 고백하고(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원래 ‘성전의 기능’



요한의 활동은 성전체제에 대한 도전

⇒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성전체제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대단하였음을 반영  
그 중심에 요한의 세례운동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 6-8절

세례자 요한은 누구인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6절)



(1) 요한의 검소한 의복과 식생활 → 금욕적이고 절제된 생활

(2) 엘리야를 연상시킴(cf. 왕하 1:8).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대표적인 예언자

요한의 메시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7절)



예수 그리스도

“OOO가 내 뒤에 온다.”(ὀπίσω μου ἔρχεται)

= “내 뒤를 잇는다.” “내 후계자이다.”라는 관용적 표현

더군다나,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마가는 그러한 관용적 표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7절)를 덧붙인다.  
신발 끈을 풀어서, 발을 씻기는 행위는 종(노예)이 하던 일  
요한은, 자신은 결코 그분과 비교될 수조차 없음을 고백

“물로 세례” VS “성령으로 세례”(8절)

